

‘소니아 리키엘’의 무대의상 연구 - 뮤지컬 ‘십계’를 중심으로 -

정은숙* · 허정선

상주대학교 의상디자인학과

A Study on the Stage Costume of ‘Sonia Rykiel’ - Focusing on the Musical ‘Ten Commandments’ -

Eun-Suk Jung* · Jung-Sun Huh

Dept. of Clothing & Design, Sangju National University

(2006. 5. 2 접수)

Abstract

Lots of audience turn their eyes upon musical to satisfy various cultural desire. It is popular culture that was watched in culture contents industry. The stage costume which turn audience's eyes in musical the most is the sight art of stage to express visually actor (actress)'s personality, mental state, administrative position, age and the distinction of sex. This study researches designed stage costume which was based on time backgrounds and historical facts of reinvented clothes and its ornaments in Egypt by ‘Sonia Rykiel’ through musical, ‘ten commandments’ with special times. We collected home and abroad documentary records, Internet data. Moreover we viewed performance to analyze stage costume and brochure photograph data to study. In consequence the stage costume of musical ‘ten commandments’ found its way out of traditional clothes and its ornaments largely. We can recognize the stage costume as the most important part in drama by explaining the content on drama as costume through reinvented shape with modern sense and by taking charge of the principal part to lead atmosphere. In addition, thanks to the creative work of designer for stage costume, we can realize important intermediation to make higher artistic value of musical.

Key words : Stage costume(무대의상), Egyptian clothes(이집트 복식), Artistic value(예술적 가치)

I. 서 론

1. 연구의 목적

현대사회는 대중들의 다양한 욕구를 채우기 위해 고
급화되고 전문화된 뮤지컬산업이 주목받고 있으며, 이
는 신 감성상품으로서 비중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뮤지컬은 연극의 드라마적인 요소와, 콘서트의 음악
적 요소, 미술적 요소, 무용적 요소 등의 각 분야를 총
망라하는 장르로 평가되고 있어 관객으로 하여금 문화
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메마른 감성까지 충족할 수 있
어 점차 유망한 대중문화산업으로 자리 잡고 있다.

뮤지컬에 있어서 시각적으로 보여 지는 것으로는
배우의 연기, 무대장치, 의상, 조명, 소품, 분장 등으
로 세분화 되며, 그 중 관객의 시선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을 ‘무대의상’이라 하겠다. 무대의상은 배
우의 성격, 심리, 직위, 연령, 성별 등을 시각적으로

*Corresponding author: Eun-Suk Jung
E-mail: ppuimanni@naver.com

재창조하는 무대시각예술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세계적인 디자이너 ‘소니아 리키엘(Sonia Rykiel)’이 무대의상을 맡은 뮤지컬 ‘십계’를 연구대상으로 하여, 특정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현대 뮤지컬에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무대의상의 캐릭터별 조형적 특성을 살펴봄으로써 의상을 통한 시대적 재현 정도와, 현 시대의 패션 트렌드 반영 정도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대중화, 국제화 되어가는 뮤지컬에서 더욱 전문화된 무대의상의 중요성을 고찰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뮤지컬 ‘십계’는 ‘노트르담 드 파리’(Notre-Dame de Paris)와 ‘로미오와 줄리엣’(Romeo and Juliet)과 함께 프랑스 3대 뮤지컬로 꼽히며 규모와 테크닉, 극의 구성면에서 가장 완성도 높은 작품으로 평가받고 세계에서 규모가 가장 큰 뮤지컬로 기네스북에 올라 있다.

본 연구는 ‘고대 이집트를 모티브로 한 거대한 패션쇼’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뮤지컬 ‘십계’의 무대의상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패션 디자이너 ‘소니아 리키엘’에 의해 재창조된 이집트 복식은 시대적 배경과 역사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무대 위에서 대담한 디자인으로 표현되어 이번 뮤지컬의 핵심이라 할 수 있겠다.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먼저 첫째, 뮤지컬과 무대의상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설명한다. 둘째, 무대의상을 맡은 소니아 리키엘에 대해 조사한다. 셋째, 뮤지컬 ‘십계’의 작품을 분석하고, 무대의상을 해설한다. 넷째, 뮤지컬 ‘십계’의 무대의상을 역할별로 분석하였다.

연구 방법으로는 뮤지컬, 무대의상 및 이집트 복식과 관련된 국내외 문헌, 논문, 인터넷자료 등을 수집하였고, 뮤지컬 ‘십계’의 무대의상 분석을 위하여 2006년 4월에 서울 올림픽 체조경기장에서 공연된 공연을 관람하고, 브로슈어 사진자료를 중심으로 본 연구의 범위를 제한한다.

II. 이론적 고찰

1. 뮤지컬의 정의

뮤지컬은 연극, 음악, 문학, 춤, 미술, 조명 등 여러 가지 요소와 분야를 종합한 대중 오락예술¹⁾이며 또

한 기악과 노래, 드라마틱한 연기, 역동적인 무용, 그리고 무대 메커니즘이 종합 구성되어 관객과 같이 호흡하는 무대예술²⁾로 정의된다. 즉, 음악이 있는 희극으로 배우들이 대사 대신 노래를 불러 대사를 전달하며, 연기력이 포함된 춤과 악기, 무대장치를 통해서 전달되는 종합 공연이라고 할 수 있다.

현대 뮤지컬의 특성으로는 특정한 정보 또는 지식의 전달목적 보다는 보고 듣고 즐길 거리를 찾는 관객들에게 감성을 충족시켜 주는 요소를 가진 대중적 코드에 많이 치우친 모습을 볼 수 있다. 그 중 노래와 춤이 뮤지컬의 가장 두드러진 요소이다.

뮤지컬에서 노래는 극의 발단과 전개, 절정, 갈등해소 등의 요소를 음악의 특성을 살려 표현하는데 코믹한 곡으로 관객에게 즐거움을, 남과여의 로맨스는 두 사람의 듀엣이나 서정적인 아리아로 또한 합창을 넣음으로 인하여 주인공들의 감정을 극대화시키기도 한다. 현대 뮤지컬의 음악은 고전적인 음악 뿐 아니라 팝, 발라드, 랩, 재즈 등 다양한 장르가 적용되어 표현의 자유 영역이 넓게 분포되어 있으며, 콘서트 같은 다양성을 갖추는 등 그 비중이 매우 커지고 있다.

댄스는 등장인물의 감정변화와 희노애락을 표현하는 큰 몸짓, 실루엣, 군무 등 다채로운 모습으로 뮤지컬을 더욱 아름답게 표현한다. 현대 뮤지컬의 빠르고 역동성 있는 춤은 연기력 못지않은 특별한 재능을 필요 한다.

2. 무대의상의 특성

무대의상은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입는 유행과 편리성, 상업성향이 강한 일반 의상과는 그 목적과 성격에서도 판이하게 다르다고 할 수 있겠다. 무대의상은 극의 시대와 장소를 표현하며, 배우들의 직업, 성별, 신분, 연령, 성격과 캐릭터의 감정상태를 관객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연기가착용하는 의상을 통틀어 말한다.

무대의상은 무대 예술이라고 하는 종합 예술의 한 분야로 무대 위에 존재하는 모든 장르의 예술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무대 위에서의 공연(창작) 활동은 이를 객석에서 보이는 점들을 고려해 극적 효과를 얻기 위해서 실제 의상보다 단순화 또 과장되게 디자인 제작되어 지기도 하므로 예술적 활용과 개발이 필요하다³⁾.

특히 뮤지컬 의상은 무대위의 배우가 창조해야 하는 인물을 배우의 몸을 빌려 음악과 움직임이 곁들여

저 구체적으로 형상화시키는 작업이기에 무대예술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작품 전체를 연출가, 무대 디자이너, 조명 디자이너, 그리고 뮤지컬 배우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극의 인물을 창출해야만 한다⁴⁾.

무대의상은 배우의 연기를 보고 관객이 가장 빠르게 습득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로써, 연기자의 대사와 안무와 함께 시각적으로 전달되기에 이것 또한 언어표현이라 할 수 있다. 무대의상의 형태와 색상에 일관성 있는 조명과 무대배경이 중요하며, 캐릭터의 특성과 연기자의 신체조건 및 장면 전환 시 변화되는 의상을 갈아입기에 수월한 실용성도 갖추어야 한다. 또한 연기자들은 담당 캐릭터를 돋보이게 하는 액세서리나 머리장식, 분장도 중요하며, 이것은 조명과도 통일성이 강조되어 진다.

3. 소니아 리키엘의 활동배경

‘니트계의 여왕’, ‘현대의 코코샤넬’로 불리는 소니아 리키엘은 유명 패션디자이너이면서 다섯 권의 책을 내기도 한 다재다능한 인물이다. 70살이 넘은 현재도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그가 만든 옷의 특징은 편안함과 자유로움, 실용성 등으로 압축된다⁵⁾.

1930년 파리에서 태어나 20세의 어린 나이에 결혼한 평범한 가정주부였다. 임신을 한 그녀가 쇼핑을 하다가 실망한 채 돌아와 스스로 커다란 스웨터를 짜입은 것이 계기가 되어 패션디자이너의 길을 걷게 되었다. 출산 후 토끼털로 만든 스웨터를 남편이 운영하는 의상실 ‘로라’에서 판매하여 오드리 햅번(Audrey Kathleen Ruston), 카트린느 드뇌브(Catherine Deneuve) 등 당시의 인기 여배우들이 찾는 인기 브랜드로 급성장하게 되었다. 1968년 ‘소니아 리키엘 CDM S.A.’를 창립하고 이듬해 프랑스의 대표 백화점 ‘라파예트’에 개인 의상실을 차리는 대성공을 거두게 되어 현재 전 세계 46개국, 900개 이상의 매장을 확보하게 되는 유명 브랜드가 되었다.

또한, 그녀의 무한한 창작력은 그녀에게 무수히 많은 상을 안겨줬고 자연스럽게 상류사회의 일원이 되게 하였다. 특히 1983년에는 프랑스 문화 장관이 수여하는 ‘예술 문화부문의 황금십자가상’을 받았고 1996년에는 ‘Legion d’Honneur’ 훈장도 받았다⁶⁾.

그녀의 디자인 세계는 의상에만 국한되지 않고 우편판매 카타로그, 백화점 쇼룸백 등을 디자인하기도 했다. 문학에도 정열적인 소니아 리키엘은 국제 여류작가 협회 회원으로 활동하며 다섯 권의 책과 무수히

많은 사실, 책의 서문을 썼다. ‘미식가 협회’와 ‘하마나 시가 아카데미’의 회원으로 활동하는 등 패션 이외의 다양한 분야에도 많은 관심을 보였으며, 파리 여러 일류 호텔의 식기류를 디자인했고 최근에는 ‘Figurines’라 불리는 그녀 자신의 컬렉션도 디자인하고 그녀 이름으로 된 향수와 화장품 라인도 선보이고 있다. 이처럼 소니아 리키엘의 패션세계는 그녀 자신의 다방면에 걸친 관심과 열정이 모태가 되었다⁷⁾.

‘그녀는 과거와 미래에 걸쳐 패션을 창조한다. 세계를 주시하며 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사랑한다. 때론 눈이 부시도록 반짝거리는 옷도 사랑한다. 이음새를 바깥에 두기를 좋아하고 안감과 웨벳 자국을 없앴지만 원하면 언제든지 원상태로 되돌린다. 글쓰기를 사랑한 나머지 스웨터와 벨트, 가방 위에 글을 쓴다. 풍성함을 사랑해 그녀의 옷에 생명력을 부여한다.’ 옷 바깥에 이음새를 주고 글자를 새김으로 부드러운 직물, 자연스러운 옷을 만듦으로써 그녀만의 스타일을 창조했다. 단지 의상만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 남녀노소 온 세상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생활 방식을 만들어 냈다라고 할 수 있겠다⁸⁾.

III. 뮤지컬 ‘십계’의 작품 분석

1. 작품해설

뮤지컬 ‘십계’는 프랑스 3대 뮤지컬 중 하나로 이집트의 박해에서 벗어나 홍해를 건너 십계를 받기까지 히브리 민족의 역사 속에서 모세(Moses)와 람세스(Ramses)의 형제애와 사랑, 자유를 갈망하는 히브리 민족의 마음을 담은 한편의 대 서사시라 하겠다. 대사 없이 29곡의 노래로만 진행되며, 영화기법이 도입된 화려한 무대와 테크닉의 조화가 돋보이는 이 작품은 종교를 뛰어넘어 현재 민족간의 갈등과 권력구조를 사랑으로 승화하고자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

2006년 4월에 서울 올림픽 체조경기장에서 내한공연을 가진 프랑스 뮤지컬 ‘십계’는 오리지널 캐스트가 모두 참여한다는데 큰 의의를 두겠다. 이집트 역사상 가장 위대한 파라오인 람세스와 그의 아내 네페르타리(Nefertari)를 모세와 연관지어 애절한 삼각관계를 만들고 이에 모세와 람세스의 우정도 첨가하는 등 절묘한 픽션까지 결합하여 또 하나의 재미를 더한다. 또한 종교적인 이미지를 덜어내는 대신 보편적인 주제를 강조하여 기독교신자가 아닌 일반관객에게도 충분히 매력적인 작품으로써 ‘하나님의 계시’ 대신 ‘

한 인간의 정체성 찾기와 우정과 사랑을 뒤로한 채 민족을 향한 자기희생'이라는 주제가 강조되었다. 패션쇼를 연상시키는 화려한 의상과 압도적인 스케일의 무대, 정열적인 몸짓으로 표현하는 안무 등이 무대가 주는 시각적 즐거움을 한 층 더하여 준다.

세계 유일의 'GYM MUSICAL'(gymnasium musical)로써 너비 55 m, 깊이 20 m, 높이 17 m의 거대한 무대규모를 자랑한다. 그 무대를 크게 4개의 파트로 구분하여 중앙무대와 양 옆의 날개무대, 그리고 중앙무대의 뒤편에 위치하며 아래위로 움직이는 가변무대가 있다. 왼쪽 날개 무대는 주로 이집트를 형상화하고 오른쪽의 날개무대는 히브리인을 형상화 한다. 이 네 개의 무대를 이용하여 시간과 공간이 한 무대에서 동일 시간에 표현되어지며, 중앙무대 뒤편에 위치한 거대 영상 막에서는 극의 흐름과 이해를 돕는 영상물들이 끊임없이 나온다. 때로는 이 영상 막조차도 또 다른 공간을 표현하기도 한다⁹⁾.

모세라는 인물에 대한 배경 지식이 없는 관중일지라도 공연 중에 삽입되는 자막의 설명으로 그의 120년 일대기를 이해 할 수 있으며, 관중에 대한 이러한 배려는 시간적·공간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전하는 중요한 작용을 하고 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과 이집트에 내려진 10가지 재앙, 홍해가 갈라지는 장면 등 무대 위에서 표현하기 어려운 장면은 대형 스크린 세 개를 통해 영상으로 보여 지는 등 영화적 기법이 적절히 사용되어, 관객으로 하여금 몰입도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한다.

29곡은 또 하나의 주연으로 거대한 스케일의 공연만큼 강한 에너지와 웅장한 무대를 들려준다. 자식과 헤어지는 가슴 아픔을 애절하게 부른 요시벨(Yok bed)의 '아기를 보내며', 모세와 람세스의 삼각관계 속에서 혼란스러운 네페르타리의 '달레마', 인간으로 태어난 것이 가장 큰 형벌이라며 히브리인의 고통을 부른 '가장 큰 형벌', 람세스와 모세가 바다를 사이에 두고 이별하며 부르는 어쩔 수 없이 적이 되지만, 두 사람의 형제애가 감동적으로 그려진 '오 내 형제여', 커튼콜의 '사랑하고픈 마음'까지 팝, 락, 핑키, 아프리카 음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스타일의 음악들을 혼합하여 강한 에너지를 한 층 더한다. 이 모든 음악은 '파스칼 오비스프(Pascal Obispo)'가 담당하였다.

안무를 맡은 '카멜 우아리(Kamel Ouali)'는 30여명의 댄서들을 통해 화려하고 감각적인 무대를 선보이며 그 명성을 다하고 있다. 특히 열 가지 재앙이 나오

는 장면은 노래 없이 군무와 조명, 영상만으로 표현되는데 이는 히브리인과 이집트인의 갈등의 가장 정점으로써 군무들의 역동적인 몸짓만으로 표현하고 있다.

무대디자인을 맡은 '장치트 브루키야로(Giantito Burchiellaro)'는 영화를 능가하는 스펙타클한 무대로 관객들이 연출된 무대 속에 더욱 몰입하게 하여 감동을 배가 시켰다.

이 모든 요소들의 연출은 '엘리 슈라키(Elie Chouraqui)'로 프랑스의 대표적인 영화감독으로써 뮤지컬 연출 작 임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무대화법에서 과감히 벗어난 독특하고 새로운 영화기법의 도입으로 그 연출력을 인정받고 있다¹⁰⁾.

2. 무대의상 해설

뮤지컬 '십계'의 무대의상을 맡은 세계적인 디자이너 소니아 리키엘은 무대 의상이 처음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명성에 걸맞게 당시 이집트의 시대적역사적 배경을 비롯하여 각 배우 한명 한명의 캐릭터를 분석하고, 액세서리 하나까지 모두 하나의 컨셉으로 제작되어 공연을 보는 이로 하여금 또 하나의 시각적 만족을 느낄 수 있게 된다¹¹⁾.

'뮤지컬 십계는 고대 이집트를 모티브로 한 거대한 패션쇼다' 프랑스를 대표하는 패션디자이너 소니아 리키엘의 무대의상은 이 뮤지컬에서 매우 주목받는 대상이 되고 있다. 바즈루어만 감독은 영화 '로미오와 줄리엣'에서 디카프리오(Leonardo Wilhelm DiCaprio)가 프라다(PRADA)를 입고 등장한 것처럼, 의상은 때로 스스로의 가치를 배역에 덧씌운다¹²⁾.

무대위에서 보인 히브리인 의상은 옷을 뒤집은 듯한 바느질 솔기가 그대로 드러나거나 소매가 뜯어진 드레스, 끝마무리가 안 된 채 펄럭이는 옷 마무리 등 그녀의 스타일이 무대 속에 잘 녹아져 있었다. 1974년 처음으로 이 스타일을 내보였을 땐 사진을 찍으려 온 칼 라거펠트(Karl Lagerfeld)가 '내일이면 모두들 당신을 한 대씩 때리려고 할 것'이라며 농담을 할 정도로 냉담한 반응을 보였으나 지금은 '탈 패션(demode)'이라는 새로운 물질을 몰고 온 패션의 선구자로 인정받아 그녀만의 독창적인 스타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이집트민족의 의상은 왕족의상과 병사의상의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람세스는 고대 이집트의 기본의상인 로인 클로스에 많은 주름을 달아 그

<표 1> 이집트 민족과 히브리 민족의 무대의상 비교

	이집트 민족	히브리 민족
컬러	왕족을 나타내는 황금색과 블루컬러 군인들의 아이보리계통	노예계층의 신분을 표현한 황토색, 회색 모세와 시뵘라의 붉은색
분장 & 헤어	왕족은 황금색을 많이 사용. 눈을 까맣게 해서 눈 꼬리를 길게, 눈썹을 각 지게 표현.	노예들이기에 거의 티가 나지 않을 정도로 내추럴하게 하며 눈을 어둡게 나타냄. 자연스러운 컬을 살린 헤어스타일.
디자인	왕족의 주요 장식 소모품 착용 (파시움, 앙크, 지팡이와 도리개 등) 비티아와 네페르타리는 롱 원피스를 착용 남녀 모두 스커트를 주로 착용 왕의 권위를 나타내는 각을 살린 주름 군인들의 위엄 있는 스커트 무녀들의 화려한 의상	히브리인을 상징하는 붉은색 스카프 시뵘라의 강렬한 붉은 롱 원피스 노동할 때 주로 바지를 착용 마무리되지 않은 시집치리 자연스러운 드레이퍼리형 주름 꼬임을 살려 아름답게 처리된 의상

위에 세련된 스티치를 넣어 왕의 권위를 나타냈으며, 비교적 단순한 디자인의 의상위에 화려한 장신구를 통해 그 신분의 위엄을 더하였다. 한편 병사들에게는 민무늬 옆트임 스커트를 입혀 비교적 단순한 모습으로 왕족과의 차별성 나타냈다. 히브리민족의 의상은 노예 신분에 맞게 너털너털한 모습에 바지를 입어 치마를 입은 이집트민족과의 대립을 의상으로써 느낄 수 있게 하였다 <표 1>. 이러한 출연자의 개성에 맞게 디자인된 의상들은 단순한 의상을 넘어 연출의 영감까지 파고들어갔다고도 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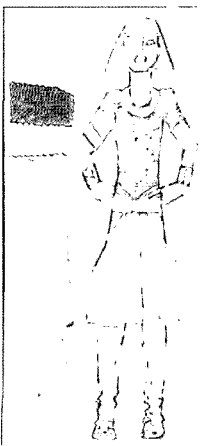
죽이도록 명령된 파라오 시대에 히브리인으로 태어난 모세는 우여곡절 가운데 파라오의 동생인 비티아(Bithia)에게서 왕자의 신분으로 자라게 된다. 이 시기의 이집트는 왕권 확립과 권력 강화를 위하여 피라미드를 건설하게 되는데 이때 모세는 피라미드 축조공사 현장의 총 감독이었다. 그래서 모세는 왕족답게 번쩍이는 황금색의 의상을 입었으며, 현장감독으로서의 실용적인 측면을 강조하기 위해 장식을 배제한 소박함이 돋보였다. 황금색 상의와 피라미드의 삼각형을 연상할 수 있는 트라이앵글러 에이프런이 그의 신분과 시대적인 배경을 알 수 있게 한다. 이 당시 삼각형은 태양광선을 상징하는 수직선에 주름을 잡아 태양신의 아들임을 과시했고 또한 나일강 하류의 평야인 델타(delta)를 상징하는 것이다¹³⁾ <그림 1, 2, 3>.

목동의 삶을 살던 모세는 시내산 불타는 나무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자신의 민족인 히브리 민족을

IV. 뮤지컬 ‘십계’의 무대의상 분석

1. 모세의 무대의상

노예 신분인 히브리인으로 태어난 남자 아이는 다



<그림 1> 모세의 왕자의상 일러스트
(cafe.daum.net/lesdix)



<그림 2> 모세의 왕자의상
(cafe.daum.net/lesdix)



<그림 3> 트라이앵글러 에이프런
(출처: 서양복식사)



<그림 4> 모세의 지도자의상 일러스트(cafe.daum.net/lesdix)



<그림 5> 모세의 지도자 의상(심계 브로슈어)

해방하기 위하여 이집트로 되돌아간다. 히브리인의 구원자로 나타난 모세는 유목민이었던 모습대로 초라한 의상이지만 구원자의 의지를 나타내는 레드머플러와 옷의 패턴을 크게 넣어서 강직함과 니트를 허리에 묶어 강한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그림 4, 5>.

한편 그의 형이었던 람세스는 이와 상반된 블루 계열의 의상과 화려한 장신구로 왕위를 계승할 람세스의 의상을 표현하였다. 모세의 손에는 나무지팡이, 람세스의 손에는 무기를 들어서 두 형제의 극중 대비를 극대화 시키고 있다.

2. 람세스의 무대의상

파라오의 아들인 람세스는 모세와 의형제로 자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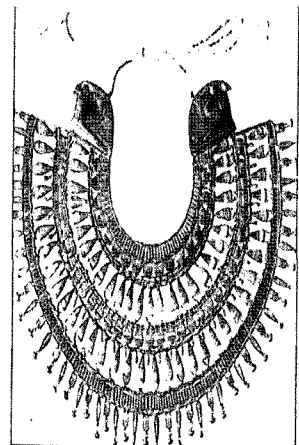
좋은 라이벌이어서 선의의 경쟁을 하게 되며, 왕국과 사랑하는 여인(네페르타리)에서도 갈등을 하게 된다. 이 때 람세스의 의상은 강하고 화려한 것이 포인트이다. 블루 컬러는 공연의 전체적인 컬러와도 통일되며, 람세스의 권력 속에 있는 장면은 이 컬러로 표현되어진다. 로인 클로스의 많은 주름을 가질 수 있는 특권은 왕에게만 있었고 디자이너 소니아 리키엘은 이것을 더욱 부각시키기 위해 부채꼴모양으로 하여 그 위에 세련된 스티치를 넣었고, 도련부분을 불규칙하게 하여 각을 더욱 돋보이게 하였다. 상의로는 수많은 구슬과 보석을 엮어서 만든 넓은 칼라형의 푸른색 파시움에 가슴장식으로 독수리를 크게 늘어뜨렸다. 독수리는 죽음의 땅에서 보호의 역할을 한다고 여겨졌으며 왕가의 상징이 되어 신분을 나타낸다<그림 6, 7, 8>.



<그림 6> 람세스 왕자 의상
(cafe.daum.net/lesdix)



<그림 7> 람세스 왕자 의상
(심계 브로슈어)



<그림 8> 파시움(서양복식사)



<그림 9> 람세스 결혼의상 일러스트 cafe.daum.net/lesdi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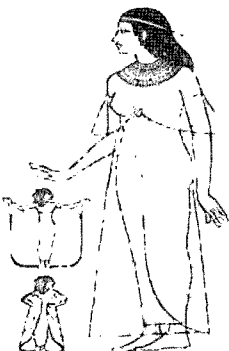
<그림 10> 람세스 결혼 의상 (cafe.daum.net/lesdix)

모세와 람세스는 항상 라이벌 관계였는데 왕국과 사랑하는 여인(네페르타리)에서도 경쟁을 하게 된다. 모세의 추방으로 람세스는 왕국과 네페르타리 모두를 잃게 된다. 람세스와 네페르타리의 결혼 장면은 왕족의 상징인 황금색으로 통일된다. 왕인 람세스는 머리엔 황금색 가발과 상의에는 황금색 스트라이프를 넣고 스커트 단에도 황금색으로 처리하고, 허리장식 역시 황금색 등근 버클로 마치 태양을 상징하는 듯 그 옆의 주름은 햇살처럼 보였다. 이집트인의 의상을 대표하는 기하학적 문양인 직선을 표현하여 그들의 민족 대표로 나타나진다 <그림 9,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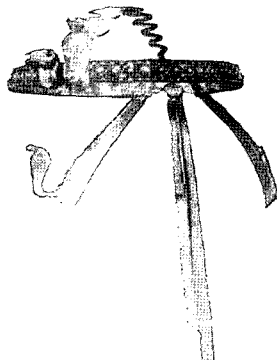
3. 네페르타리의 무대의상

이집트의 세습왕녀로써 그녀를 차지하는 자가 왕이 될 형편이다. 모세와 람세스의 삼각관계에서 고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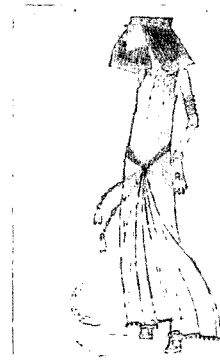
하던 그녀의 의상은 이집트의 복식 칼라시리즈가 현대적으로 재창조된 모습이었다<그림 11>. 왕족의 신분엔 걸맞은 황금색으로 주름 이루고 이 뮤지컬의 의상 중 가장 화려하며 단연 돋보인다. 머리장식으로 뱀 머리 화관을 쓰고 금사로 땀은 머리를 하여 다른 사람과 차별성을 두어 공주로써의 신분을 더욱 시각화 하였다<그림 12>. 왕족의 칼라시리즈는 일반인의 것에 비해 그 실루엣이 더욱 넓고 풍성한 것이었고 형태도 다양했다. 양 옆을 바느질하지 않고 끝 모서리를 등글러 앞뒤로 접어 올렸기 때문에 벽화에서 등근 사선이 가슴을 향해 올라가 있는 것¹⁴⁾이 특징이다. 한편 현대적으로 재해석된 네페르타리의 의상은 많은 주름을 잡기보단 주름이 잡혀 있는 원단으로 스커트위에 덧입고, 상의엔 금색띠를 중심으로 향하여 사선으로 빼곡히 붙여 허리에는 금속 허리띠를 둘러 멀리서 보면 수많은 주름이 잡혀진 일반 원피스처럼 보이



<그림 11> 칼라시리즈(서양복식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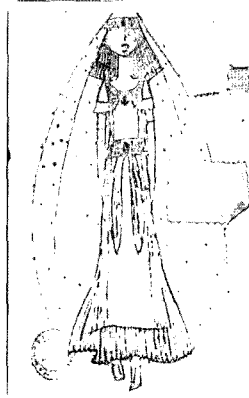
<그림 12> 뱀머리 화관(서양복식사)



<그림 13> 네페르타리 공주의상 일러스트 (cafe.daum.net/lesdix)



<그림 14> 네페르타리 공주의상 (십계 브로슈어)



<그림 15> 네페르타리 결혼의상 일러스트 (cafe.daum.net/lesdix)



<그림 16> 네페르타리 결혼 의상 (cafe.daum.net/lesdix)

<표 2> 등장인물별 무대의상 분석

등장인물		컬러	디자인과 액세서리	구 성
모세	왕자	황금색, 흰색	트라이 앵글러 에이프린 스커트 장식을 배제한 소박한 의상의 왕자모습 서츠의 황금색으로 왕족임을 표현	서츠 스커트 팬츠
	지도자	황토색, 붉은색	코트 위에 니트로 허리를 묶음 레드머플러로 지도자의 강한 의지를 나타냄 나무 지팡이로 목동의 신분 표현	서츠 팬츠 코트
람세스	왕자	푸른색, 흰색	커다란 파시움과 독수리 장식 각을 살린 주름진 스커트로 왕의 권위와 위엄을 나타냄	파시움 스커트 망토
	결혼식	흰색, 황금색	순백의 의상에 황금색 포인트 황금색 가발과 팔찌	서츠 스커트
네페르타리	공주	황금색	칼라시리즈를 재구성한 원피스 독수리 화관과 황금 팔찌 황금색 땃은 머리 가발	원피스
	결혼식	흰색, 황금색	순백의 원피스에 황금색 포인트 어두운 황금색의 베일로 모세를 잊지 못한 슬픈 마음을 간접적으로 표현	원피스 베일

는 것이 특징이다<그림 13, 14>.

모세를 사랑했지만 그가 추방당하자 람세스와 결혼하게 된다. 네페르타리의 결혼의상은 왕과 공주라는 결혼식에 맞게 화려함을 강조하여 황금색 컬러를 주로 사용하였다. 가장 두드러진 특징으로는 베일이 어두운 황금색인데 이는 아직 모세를 잊지 못한 슬픈 마음을 간접적으로 표현함이라 하겠다. 드레스는 람세스와 비슷하게 하얀 드레스 위에 황금색으로 목과 허리에 띠를 두르는 등 서로 조화를 생각했으며 스커트 양 옆의 슬릿사이로 보이는 주름스커트가 더욱 화려함과 숭고함을 나타낸다<그림 15, 16>.

위의 내용들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2>.

V. 결 론

다채로운 문화를 접하길 바라는 현대인에게 뮤지컬이야말로 다양한 감동을 느낄 수 있는 종합예술이라 할 수 있겠다. 뮤지컬 중에서도 무대의상은 공연의 대사보다도 극의 정보를 빨리 전하며, 극의 흐름을 순조롭게 하는 중요한 매개체로써, 의상을 통한 시각적 표현의 비중이 커져가고 있다. 이러한 무대의상의 특징으로는 장면 전환 시 갈아입고 벗기에 수월한 실용성과, 노래와 안무, 연기를 하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활동성이 강조되며, 또한 액세서리와 머리장식, 분장 등의 조명과의 관계에서도 유념해야 하는

예술적 활동으로 꾸준한 창조적 활동이 필요한 부분이라 하겠다. 디자이너 ‘소니아 리키엘’에 의해 표현된 뮤지컬 ‘십계’의 무대의상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역사에 많은 비중을 둔 뮤지컬 ‘십계’는 고대 이집트 복식에서 많이 벗어나지 않으면서 현대적 스타일이 덧입힌 무대의상을 선보였다. 디자이너의 패션 감각이 돋보이는 ‘십계’의 무대의상은 관객으로 하여금 쉽게 공감할 수 있는 디자인이다.

둘째, 뮤지컬 ‘십계’는 무대미술과 음향, 조명기술의 발달로 인해, 무대의상의 지나친 과장이나 화려함이 감소한, 비교적 단순해지는 모습이다.

셋째, 무대의 컬러 사용에 있어 람세스 왕권 하의 무대는 푸른색 의상과 조명으로, 고통당하며 억압받는 히브리인의 무대는 붉은색 의상과 조명으로 색상을 달리하여 심리적극적 상황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넷째, 무대의상 디자인에 있어 이집트 민족의 기하학적인 선과 각, 히브리민족의 마무리되지 않은 시접 처리와 자연스러운 드레이퍼리형 주름은 두 민족의 대립을 시각적으로 구분 짓게 한다.

다섯째, 무대의상은 철저한 인물 분석과 디자이너의 창작성이 요구되는 작업이며, 각기 다른 디자인과 장식품은 등장인물의 성격과 처한 환경, 사회적 신분이 상징적으로 표현되고 있다.

이상으로 뮤지컬 ‘십계’의 무대의상은 고대 이집트

전통복식을 크게 벗어나지 않고 현대적 감각으로 재창조된 모습으로 극에 대한 내용을 의상으로서 설명하고,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주 역할을 담당하여 극에 있어 주된 요소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무대의상은 디자이너의 창조적 작업으로 인하여 뮤지컬의 예술적 가치를 한 층 높일 수 있는 중요한 매개체가 됨을 알 수 있었다.

참고문헌

- 1) 김석완(1998). 팝음악의 역사. 서울: 세광음악출판사, p.47.
- 2) 차태호(1998). 뮤지컬 연출 체크리스트. 서울: 남지, p.13.
- 3) 고석희(2002). 한국 뮤지컬 무대의상 연구. 단국대산업경영대학원. p.3.
- 4) 구민수(2004). 뮤지컬 아이다의 무대의상디자인 연구. 동덕여대 패션전문대학원. p.26.
- 5) 장현숙(2001). 노트 고급화 선도 ‘소니아 리키엘’. 동아일보. 11. 21
- 6) <http://blog.naver.com/yasi7737/100007890775> 2006. 4. 19.
- 7) <http://blog.naver.com/ppuimanni/100023685579> 2006. 4. 21.
- 8) <http://blog.naver.com/yasi7737/100007890775> 2006. 4. 19.
- 9) 뮤지컬 십계 국내 공연 브로슈어(2006). p.34.
- 10) 브로슈어(2006). ‘앞의 책’. p.11.
- 11) <http://cafe.naver.com/themusical/3638> 2006. 4. 20.
- 12) 강병한(2006). 패션쇼 같은 뮤지컬 ‘십계’. 조선일보. 3. 23.
- 13) 정홍숙(1998). 서양복식문화사 서울: 교문사, p.21.
- 14) 정홍숙(1998). ‘앞의 책’. p.21.